

2018년 신년 제 1 강
말씀 / 에베소서 4:1-16
요절 / 에베소서 4:15

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

1. 바울은 왜 옥에 갇혀있었습니까(1a; 3:1)? 이런 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는 바가 무엇입니까(1)?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(2,3)?
 -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
 -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
 -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
- 엡3: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
2.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(4-6)? ‘하나 됨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?
(참조 1:9-10; 2:13-19; 고전12:12-13)
 -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
 -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
 -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
- 엡1: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
-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
- 엡2: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
-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
-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
-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
-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
-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
-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
- 고전12: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
-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

3. ‘우리 각 사람’은 누구를 가리킵니까(7a)?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(7b-10)?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직분이 무엇입니까(11)? 은혜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(12)?
-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
-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
-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
-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
-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,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,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,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
-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

4.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합니까(13)? ‘어린 아이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(14)?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(15-16)?
-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
-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
-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
-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